



다가오는 가을... 서귀포는 문화축제장

내달 17~19일 서귀포서 국가지정 문화축제 ‘문화의 달’ 서른한번째 서귀포칠십리축제와 연계 ‘제주 신화’ 주제

10월, 서귀포 원도심이 문화축제장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귀포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 지정 문화축제인 ‘2025 문화의 달’ 행사가 서귀포 대표 축제인 서귀포칠십리축제와 연계해 다음달 펼쳐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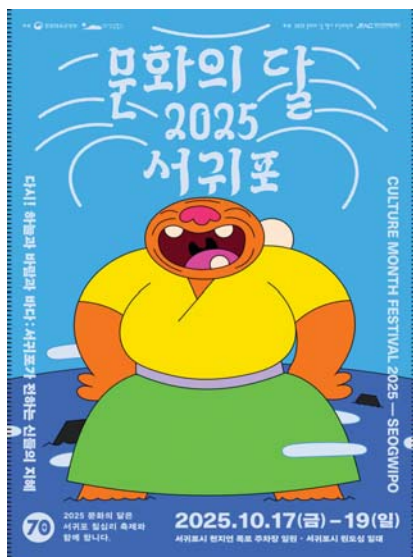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0년 시작한 ‘문화의 달’ 행사는 문체부가 매년 한 지역을 선정해 10월 셋째 주 토요일 전후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국가 지정 문화축제로, 올해 개최지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다시! 하늘과 바람과 바다: 서귀포가 전하는 신들의 지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10월 17~19일 사흘간 천지연폭포 일대와 이중섭거리, 솔동산 문화거리, 자구리공원 등 서귀포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 신화인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념 공연 ‘설문대할망 본풀이’를 비롯해 자우림·이브라힘 말루프·엔플라잉 등 국내외 뮤지션 공연, 가문잔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미식 체험, 일몰·일출 요가, 거리예술·서커스, 지붕없는 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한다. 1995년 시작해 30년 넘게 이어온 서귀포시 대표 가을 축제인



‘2025 문화의 달’ 행사 포스터

칠십리축제가 올해는 제1회 개최지였던 천지연폭포 주차장 일대를 주 무대로 진행된다. ‘동GO(고)동樂(락)’, 불가인 놀거인 재미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축제는

서귀포시 17개 마을의 삶과 문화를 담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칠십리 오픈런’, ‘칠십리 아동·청소년 연극제’ 등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 먹거리장터, 칠십리마켓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의 달 행사와 칠십리 축제는 서귀포만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연계행사를 통해 행사 방문객에게 더 큰 감동과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64-760-2573), 관광진흥과(064-760-3942),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사무국(064-760-0904)으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이지혜의 ‘여우! 뛰어놀다’

다른 시선 속 겹겹이 쌓이는 이야기

청유갤러리 첫 기획전 작가 12인의 ‘레이어’

서로 다른 시선과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제주주시 한림읍 금악목장길에 있는 청유갤러리에서 열리는 ‘Layer (레이어)’ 전시다.

이번 전시는 청유갤러리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기획한 공모선정작가 단체전이다. ‘서로 다른 시선과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12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권지은, 김나우, 류진, 송현정, 예미킴, 우암, 이지현, 장승원, 하피엘, 현주희, 황연우, BKY이다.

‘레이어’라는 제목은 단순히 겹쳐지는 형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 수많은 이야기의 겹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매체를 가진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며 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유갤러리(전화 050-6525-97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19세기 파리 옛 기차길이 미술관으로”... 문화강좌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오는 26일 오후 7시 대강당에서 ‘2025 열린 문화예술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국내 대표 전시해설가 정우철 강사가 ‘오르세, 예술이 출발하는 역’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정 강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우철의 미술극장,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국내외 미술관과 전시 현장에서 작품과 소통하는 방법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19세기 파리의 옛 기차역이 세계적 미술관으로 변모한 과정과 함께 쿠르베의 현실, 마네의 시선, 모네의 빛, 고흐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구법에서 감정까지’의 예술 흐름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이미지로 전한다.

참가 신청은 이달 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귀포학생문화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재현기자

제주 풍경과 교감... 김형석 사진전

‘제주, 감정의 공명’ 전 노바운더리 갤러리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노바운더리 제주 갤러리는 사진작가 김형석 초대전 ‘제주, 감정의 공명’을 열고 있다.

김형석은 자연과 눈에 보이지 않은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해온 작가다. 제주의 풍경과 그 속에서 마주한 순간의 감정을 사진에 담아내왔다. 제주의 빛, 색, 질감, 바람 등이 다채롭게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의 자연

과 감정의 교감을 담아낸 그의 대표 작품들과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어떤 감각은 감정의 기억을 소환하고 시공간을 넘나들게도 만든다”며 “때로는 비스듬히 떨어지는 빛 줄기에서, 때로는 바위 위의 거친 질감에서, 때로는 겨울 풀밭의 이슬내음에서 발견되곤 하는 감정의 조각들을, 마치 끊어지기 쉬운 그물을 다루듯 조심스레 건져 올린다. 보는 일, 느끼는 일, 그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하여 잃어버린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듯하다”고 전했다.



김형석의 ‘구좌, 하도리’

김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일본 타마미술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제주와 서울에서 ‘제주의 시’, ‘감정의 질감’, ‘감정의 온도’, ‘감정의 소리’, ‘Morocco On The Road(모로코 온 더 로드)’ 등 초대전을 비롯한 다수의 전시를 했다.

전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한림 작은영화관 올해도 ‘화목한 주말’ 운영

한림 작은영화관은 이달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석달간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림 작은영화관이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한림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이라는 주제로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함께 선보인다. 접하기 어려웠던

명작을 상영하는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정기 상영’, ‘제주 지역 특색을 담은 ‘제주 다양성 영화 상영과 특별 초대전’, 하나의 주제로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연결한 ‘월간 페어링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산학협력교수
전언어재활사

